

改革, 成長 및 國際競爭力

朴 佑 奎

〈韓國開發研究院·經博〉

新政府가 들어서서 改革과 司正이 한창 진행되면서 소위 改革과 成長間의 관계가 논란거리였다. 즉, 올해 初부터 成長率이 둔화되면서 개혁작업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반면 개혁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改革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경기침체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경제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간혹 紙上에 보도되곤 한다. 두가지 주장 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제기되는 것일진대, 과연 우리 경제가 처한 위치가 어떠한가를 평가해 보아야 소위 改革과 成長間의 관계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筆者는 3저호황으로 경제가 年12% 이상의 高度 成長을 지속하고 국제수지 흑자가 큰 규모로 유지되던 88年末 당시 부총리로 취임하였던 趙淳교수의 주장이 지금 더욱 절실히 통용된다고 본다. 그는 “高費用, 低效率의 경제구조를 革罷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成長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成長 그 자체보다는 成長潛在力의 배양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改革은 成長의 지속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과거 30여년간 연평균 8~9%의 실질 成長을 해 왔다. 이러한 高度 成長이 가능하였던 것은 노동력이 풍부하여 생산확충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큰 경쟁상대없이 수출확대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주의적 정부의 관료조직은 정부주도의 개발계획을 밀고 나

감으로써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成長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對内外 여건이 급변하였다. 우리경제가 당면한 과제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제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80년대 중반내지는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를 위협할 만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였던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급속히 강화되어, 해외시장에서는 물론 국내시장에서마저 이들의 상품에 경쟁력을 크게 상실해 가고 있다. 이미 우리 경공업 제품의 수출증가율은 급격한 엔高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경공업위주의 산업은 투자는 물론 생산마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경기침체는 바로 경공업의 경기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후발개도국의 추적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주력업종인 중화학공업제품마저 경쟁대상이 될 경우 우리경제의 장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한 예로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경공업제품의 수출주도로 크게 성장해 왔던 태국이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低賃金에 바탕을 둔 제품이 쏟아져 나오에 따라 더 이상 경공업 제품의 수출확대가 어렵게 되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국에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 경공업제품의 對美國 수출비중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크게 앞선 중국에서도 산업이 점차 중화

特別企劃

학 쪽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외국인론에서 혹평받던 말레이시아의 자동차는 지금 영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품질과 가격을 자랑하면서 自國의 내수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이와같이 아시아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들 국가의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은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다. 더구나 그간 경제상태를 보여왔던 인도와 중남미국가들의 경제구조가 개선되고, 최근 민주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한 동구국가들의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경우 이러한 각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와같이 세계경제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경제를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賃金, 地價, 金利 등의 요소비용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임금이 너무 높아 세계경제여건(엔高의 급반전 등)이 변할 경우 우리의 경쟁력이 급격히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원래 임금이란 물가가 낮아지고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축소되면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구조가 과연 이와같이 신축적으로 움직일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유희노동력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86년부터 경제의 급성장으로 유희노동력이 축소되는 현상과 함께 87년의 민주화투쟁 이후 우리의 노동시장구조가 급격히 바뀌었

다. 이는 우리산업이 대규모 중화학공업위주라는 사실과 함께 기존의 노동법이 노사분규에 있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노동시장구조를 극히 경직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겠다. 즉 경제가 어느정도 침체한다고 해서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산업(특히 경공업)의 경쟁력을 너무 빠르게 약화시켰으며, 이는 반전되기가 극히 어려운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우려된다. 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미 90년부터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대만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더구나 生産性向上마저 상대적으로 더뎠에 따라 單位勞動費用은 그 증가율이 대만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國際競爭力이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임금이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은 우리경제의 高費用狀態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상반기중 경공업에 대한 국내투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해외투자는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결국 경공업기업가들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活路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 대거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大宇같은 대기업이 자동차, 전자 등 우리의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 舊蘇聯, 중동, 필리핀 등지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다른 대기업들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개별기업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나, 과연 우리의 노동시장이 중화학공업마저 살리지 못하나 하는 우려마저 든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의 실업률이 현재보다도 상당히 높아진 수준에서 고착될 수도 있다. 실업이 높은 경제에서는 분배나 복지를 확대하기도 곤란해진다. 최근 유럽에서 높은 실업상태가 가까운 시일내에 쉽사리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실업수당 등의 福祉水準을 축소시키고, 資本에 더 많은 유인책을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新政府의 향후 개혁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서, 더 이상 근로자의 극한투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세계경쟁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韓國·臺灣 製造業의 單位勞動費用 推移

(1986=100.0)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86~91 平均 增加率
韓 國	賃金(自國通貨)	100.0	111.6	133.5	166.9	200.6	234.4	18.6
	(달 리)	334.1	399.7	538.0	732.3	834.4	940.9	23.0
	\$單位勞動費用	100.0	116.3	145.8	198.4	115.4	220.0	17.1
		(-0.1)	(16.3)	(25.4)	(36.1)	(4.1)	(6.0)	
臺 灣	賃金(自國通貨)	100.0	109.9	121.9	139.7	158.8	175.9	12.0
	(달 리)	369.7	484.4	596.4	739.8	824.6	917.3	19.9
	\$單位勞動費用	100.0	118.6	138.5	157.6	162.2	163.8	10.4
		(4.5)	(18.6)	(16.8)	(13.8)	(2.9)	(1.0)	

註: ()안은 前年對比 上昇率(%)